

#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현장의 기록

## 조혜정 지음 「글읽기와 씁읽기」

어느 일간지에 실린 서평을 보고 호감을 느끼어, PC-Serve의 교보문고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하였다. 서평자의 평문이 좋기도 하였지만, 보다 직접적인 구입동기는 저자인 조혜정 교수가 나의 대학시절 지도교수였다는 인연이 적절할 것 같다.

그 많은 학생수와 바쁜 학사일정을 담보로 선생과 제자로서 단 한번의 독대면도 없었던 기연(?)을 갖고 있는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늦게나마 나의 선생이었던 분의 어느 한 자락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책을 펴 들었다. 지난 시절 '문화인류학' 수업에서 느꼈던 '난해한 강의, 해체된 의식속의 그대'가 아니라 그래도 일말의 연분을 갖고 있는 이의 글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 책으로 인해 다소는 지난날의 소원과 무관심을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간의 '학술서적' 등에서 보이는 현학적인 수사력에 식상한 나에게 조혜정 교수의 '글 읽기와 씁읽기'는 그 제목의 간결한 조어력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한 글쓰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의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글쓴이의 일관된 노력이 와 닿는다.

책의 내용은 지난 91년 봄학기 저자의 '문화이론' 전공수업 진행내용을 기술한 시론적인 교육현장의 기록이다. 저자 자신이 강단을 내려와 학생들과 함께 둘러앉으면서, 구습적인 강의 방식에 대해 저자 나름의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교수는 수강자를 모두 화자로서 담론에 참여시키고, 제시된 주제에 대한 무정형적인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설정한 교수의 '메세지'를 일깨우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도하며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정리·구성하였다.

좀더 가까이, 보다 더 진솔한 학생들에게 접근하려는 교수의 입장과 함께, 그러한 접근을 방해하는 현장의 장벽들, 구체적으로는 많은 수의 학생수와 멀어진 강단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조건의 장애도 있지만, 저자가 우려하는 진짜 '장벽'은 학생들 내면에 고착화되어 편향화된 "인식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적인 표현으로 잘못된 '입시위주 교육'에 가장 큰 혐의를 두어야 하지만 저자는 단지 사회과학적인 구조적 인과분석에 그 뜻을 돌리기보다 이러한 현상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저변의 복합적인 원인요소를 문화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그 대안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을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다.

저자 자신의 삶을 표현한 '헛도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충 '의식없이 사는 삶'이나 '습관적인 삶'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이러한 헛도는 삶을 어떻게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대안으로서 글쓴이는 일종의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삶을 창조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깨어있는 의식'을 제안한다. 현실에서 드러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의미에서 '창조적 씁읽기'는 최고의 배움을 자처하는 '지성인'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씁읽기 방식이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사실 우리-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현학적인 분석 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각종의 현장기록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를 운위해 가는 구체적 현실의 정리를 통해 보다 깊이있고 신중한 사색의 자료로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무엇이건 시도되어 일회성의 소모적인 시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생생히 기록하여 전달함으로써 해당 연구자들의 협업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상 삼입되었던 이미지 구성의 의욕은 흑백사진의 한계와 지문의 평이성에 대비되어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글로서만이 아닌 시각적인 면에서 병행되어 나름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상호성을 시도하였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자기글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많은 글쓰는 이들에게 좋은 전형이 되는 글쓰기라 생각된다. 특히 학문의 울타리에서 자기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조혜정 교수의 글쓰기는 자기식의 개성과 주관을 갖추었다고나 할까?

### 정현태

서울시 구로구 시흥5동 926-7

### 「새시대를 위한 周易」

주역은 동양문화·동양사상의 원천으로서 동양정신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광범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 서구의 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주역이 동서양의 학술·문화상에 있어서 이처럼 지대한 권위를 누려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역의 진리가 나라를 경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예지로 가득 차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시대를 위한 周易」(글)은 서명이 말해주듯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주역이라는 고전을 새로운 시각에서 번역·주해한 책이다.

이 책은 종래의 다른 주역 주해서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이 책에는 주역이 한낱 점술가의 길흉을 예단하는 천박한 점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국가경영철학이라는 점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주역을 점서로만 오인하는 시각을 바로잡고 주역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또하나의 특징은 단순히 주역의 해석에 있어서 子句해석을 뛰어넘어 근본정신을 철저히 천명함으로써 주역을 기원전 21세기의 홀러간 周나라의 주역에서 기원후 21세기의 살아있는 한국인 韓易으로 재창조하였다는 점이다.

徐正祺 성균관유교문화연구위원장의 반평생 학문연구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본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신비스럽고 어렵게만 여겨져 오던 주역을 평이한 문장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여 앞으로 주역에 관심이 있으나 쉽사리 접근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에게 주역연구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격동기 20세기말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새로운 이상, 새로운 체계가 모색되는 이 시기에 사물과 생명의 근원, 인식의 본질,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 목표 등 이른바 형이상학적 제문제를 규명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적·사회적·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는 주역을 다시 주해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다.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인간의 정신을 성숙시켜온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 周易! 새로운 삶에 눈뜨고 새시대의 主役이 되고자 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꼭 읽어야 될 책이다.

### 심백강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45-2

### 「여자도 이제는……」

性是 이제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안방극장에서 거침없이 남녀간의 애정이 표현되고, 잡지를 펼치면 항상 눈길을 회피할 수 없는 선정적인 모습을 비단 남성만이 전유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성이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상품으로 전략하면서 우리 모두는 유포품에서 익혔던 몸짓과 관념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릿함을 느낀다. 그만큼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맞는 요리법을 개발하는 것이 인간이다. 성에 대한 담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우리가 유교적 생활방식으로 살면서, 성은 항상 은밀한 장소에서 나누는 못된 이야기였다. 이러한 성에 대한 억압은 유교사상의 고정성에서 쉽게 그 기원을 찾게 된다.

자유로운 생각을 추종함은 그 성격상 성에 관한 담론의 개방까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억압에 대한 반발은 항상 그 사회의 가장 억압적 요소에서 시작된다.

박은희의 이 책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위 '개방문화'의 산물이다. 과거 사석에서 장난끼어던 투로 내뱉던 이야기들이 유형별로 풍토화되고, 그 이야기 내용이 분석된다. 연애, 성폭력, 혼전관계, 고부갈등 등, 결코 우리 사회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주제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어떤 주관성을 갖고 개입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주관성이란 다음이 성문제를 철저히 남녀간의 쌍방적 관계로 규정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접근 방식은 성에 관한 담론의 귀결점을 소위 추상화된 '사랑'으로 형상화한다. 물론 책 군데군데 성의 문제를 두 남녀를 넘어, 어떤 사회적 요소 곧 자본주의사회의 특성과 연결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자 스스로 분명히 말하듯, 남녀간의 보다 나은 사랑을 위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논변으로 미루어 보면, 성이 문제화되고 극복되는 단위는 개인이다. 각 개인은 성에 대한 지식의 획득자이며 동시에 성에 대한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성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구성될까? 각 개인은 어떻게 성에 눈뜨고 그 독특성을 담지하게 될까? 또 성은 항상 억압된 형태로만 나타나는 걸까? 이런 물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개인들이 서로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기 전에 풀어야 할 사회학적 질문들이다.

담론의 특성은 그 개방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담론을 불결하다는 도덕적 판단을 하기 앞서, 서로 개방적인 토론을 전제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윤리관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 안치숙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4번지 주공10단지 1002-101

### 「난 월급받는 시인을 꿈꾼다」

우리 시대의 작가들은 가난하다. 소위 베스트셀러작가라 일컫는 몇몇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작가가 생활고에 허덕이며 글을 쓰는 것이다. 외래문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는 작가들의 어려운 처지는 안쓰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오봉옥 시인의 산문집은 제목부터가 당당해서 좋다.

「난 월급받는 시인을 꿈꾼다」

어쩌면 신선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 말은 당연한 작가의 요구이다. 물론 제목 그대로 그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실천으로써, 창작으로써 노력하는 시인이라는 믿음은 이 산문집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오봉옥 시인은 필화사건으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투옥되었던 작가이다. 식민지에서는 단 한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김남주 시인의 말을 어느 누구나 공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고 볼 때 오봉옥 시인의 그런 前歷은 이 산문집을 손에 들게 하는데 망설이게 만든다.

하지만, 한번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러한 편견은 사라지게 된다.

거기에는 투사로서의 오봉옥 시인보다는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것이다.

그는 무척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산문집에 들어있는 모든 산문들에 꼭 한 번씩은 그의 울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눈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웬만한 일에는 무감각해져버린 우리의 생활이 잘못된 것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다.

그렇다고 그는 눈물만을 흘리는 것은 아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의 삶의 모습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로 발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는 민중들에게는 따뜻한 애정의 시가 되고 지배자, 착취자들에게는 무서운 분노의 시가 되는 것이다.

결국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의 한 단편만을 보고 생긴 편견은 여지없이 사라지고 그를 포함한 우리 민중에 대한 애정만이 남게되는 것이다.

그렇듯 이 산문집은 인간의 냄새를 흠뻑 맡게 해준다.

## 강영훈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138-2 용두연립 나동 103호

### 「사회의 철학」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경험하는 현대는 이념을 상실한 시대이다. 세기 초 거세게 일기 시작한 평등사회구현이라는 인류의 꿈들은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숨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초되고 있는지 체험했다. 현실이란 괴물 덩어리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목표로, 서로 같음을 공유할 만한 계기도 삼켜버린다. 대신 이 괴물은 상대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주의적 냄새를 풍기는 가치를 그 배설물로 남겨준다. 자국이익의 우선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 결국 도덕적 책임이 개인으로 귀속되는 우리들의 윤리관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을 쉽게 찾게 된다.

인간의 숙명적 처지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고, 항상 어떤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의 영위는 그 구성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동의 내지 이념공유를 전제로 한다. 그 때문인지 사회생활에 굳이 철학이 요구되는 것도 인간의 기본특질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여기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주장이 있다. 이미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정신을 국내에 소개시킨 저자는 바로 이념부재 현상을 의식한 듯 명쾌한 필치로 나름대로 이 시대의 이념성을 제공한다. 저자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노동의 철학'이라 부르면서, 현실주의체제 붕괴이후 경험한 이념부재를 메꾸어보려고 시도한다.

노동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쉽게 떠오르는 마르크스철학을 주의깊게 훑어 본다면 나름대로 대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자는 노동개념을 더 소급하여 근대정신이념과 접목시킨

다. 로크의 소유권이론은 저자의 깊은 사고에 훌륭한 밑거름을 제공한다.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노동의 산물이 바로 이렇게 노동하는 주체에 되돌려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다. 노동하는 주체의 우월성보다는, 가진 자의 엄청난 폭력과 그 노동산물에 대한 소외현상이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파행적으로 반복된다. 독자는 물론 이런 문맥에서 마르크스 소외이론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도 마르크스 철학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변질된 형이상학의 모순성을 지적, 비판적 안목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사유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며 독창적인 안목제시보다 서구이론의 소개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것이다.

## 정윤수

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806-9

### 「포스트모던적 조건」

포스트모던적 서구문물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치열하다. 부정적 시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살펴보면, 서양의 제국주의적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논리방식으로 역설된다.

그러나 그 어떤 시선도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의문점을 풀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적 시각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자체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긍정적

시각은 지나친 과장과 찬사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진면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같은 문외한에게는, 수용여부를 가리기 앞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진술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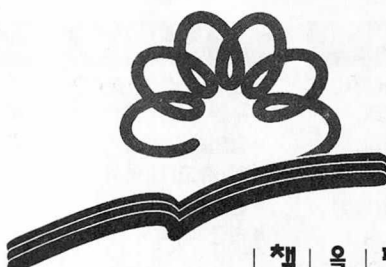
이런 문맥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가 저술한 「포스트모던적 조건」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면서도 좀 더 끈기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책이다. 매우 간결하게 서술된 이 책에서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결코 쓸데없는 말장난일 수 없는 이유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실사 지극히 유럽편향적이라고 해도 그 논리 자체는 한번쯤 숙고해 볼 만하다.

우리가 포스트모던적 조건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지식의 위상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있어 지식 이러한 지식의 위상에서 매우 뚜렷한 포스트모던적 사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과학적 지식조차 지배양식이란 권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대에 와서 과학적 지식의 현실적 모습은 지식에 대한 본질을 누가 알고 있으며,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지배의 위상에 관한 질문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전통의 권위에 대한 거대한 부정의 논리를 함유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작업이 곧 긍정적 대안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더욱 긍정적 작업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에서 있는 것 같다.

## 정소진

인천시 남구 연수동 9블럭 영남아파트 116동 601호



| 책 | 을 | 펴 | 자 | 미 | 래 | 를 | 열 | 자 |

**'93 책의 해**